

가족 여가 참여 동기 및 가족 여가 활동의 효과*

Family Leisure Motivation and Outcomes of Family Leisure Activities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조교수 천혜정**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Associate Professor : Cheon, Hyej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 고찰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divergent experiences of family leisure from parent, child and family-level perspectives. In particular, emphasis is placed on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about family leisure motivation and outcomes of family leisure activities among socioeconomic backgrounds.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by 100 families. The results indicate that Korean families mostly participate family leisure activities because of family bonding although this tendency emerges clearly only from parents' and female adolescents' responses. The families evaluate that family leisure activities bring more positive outcomes than negative outcomes to families. Intellectual motivation, family bonding motivation, and relaxation motivation are positively related to positive outcomes while obligation motivation is negatively related to positive outcomes. Further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가족여가(family leisure), 가족여가 참여동기(family leisure motivation), 가족여가 참여효과(family leisure outcome)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2-BM2544)

** 대표저자, 연결저자(Corresponding Author) : 천혜정(hjcheon@ewha.ac.kr)

I. 서 론

“가족여가”란 개념은 서구에서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가족생활의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주로 일상생활에서 부모와 자녀가 자유시간에 함께 보내는 시간이나 활동을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수준의 향상과 주 5일 근무제의 도입 등과 같은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족여가에 대한 욕구나 가족여가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주 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비실시 집단을 비교한 김현주·이창현·박소라(200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시 집단이 비실시 집단에 비해 가족과 함께 지낸다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 5일제 실시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로 삶의 질과 가족관계의 향상을 꼽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서구 사회와 마찬가지로 여가 행동이 가족 단위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가족이 함께 공유된 시간을 가지거나 활동에 참가하는 것만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최근 여성부에서 실시한 ‘주 5일 근무제가 가져올 가족관계의 변화는 무엇일까’라는 인터넷 설문조사에 의하면(2003년 3월, 2,548명이 참가함), ‘가족의 유대를 강화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평등한 부부관계를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답변이 47.5%와 16.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답변이 23.7%를, ‘가족여가시간이 늘어나 남편들이 피곤할 것이다’라는 답변이 11.9%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늘어남 여가시간 자체가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

가족여가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가족만족

(family satisfaction), 가족 상호작용(family interaction), 그리고 가족 안정성(family stability)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으나(Hill, 1988; Orthner & Mancini, 1991; Shaw, 1999), 연구대상이 부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삶에서 가족여가는 그리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으며(Horna, 1989; Kelly, 1983), 발달적 특성상 부모와의 갈등을 가장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들이 항상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꺼이 가족여가에 참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파악하여 부, 모, 자녀 각각이 가족여가라는 동일한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통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가족여가 활동에 왜 참여하는지, 그리고 가족여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나타나는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부, 모, 자녀 각각의 관점을 분석할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가족여가의 개념

가족여가의 개념은 학자마다 그 정의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여가 활동이나 시간을 이르는데, 이러한 정의에는 몇 가지 모호함이 있다. 첫 번째는 가족여가는 동일한 활동에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가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가족 구성원들이란 누구를 의미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이 제기된다. 가족여가에 참여하는 가족 구성원 중심으로 가족여가를 정의한 학자들에 의하면, 핵가족 구성원 뿐 아니라 동거 중인 남편과 아내의 부모 형제까지 포함하기도 하며(김외숙, 1977), 홍성희(1996)는 핵가족 및 그

와 동거하는 부모, 형제 중 2인 이상이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이호경(1994)이 20세 이상 성인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족여가의 정의에 대해 '가족들의 개인여가 활동'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12.1%, '2명 이상의 가족이 함께 하는 여가 활동'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1.6%, 그리고 '가족 전체가 함께 하는 여가 활동'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5.3%를 차지하고 있어 주로 가족 전체가 함께 하는 여가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가족여가가 가족 구성원들이 상호적으로 즐기고, 가치롭게 여기고, 만족스러운 것을 의미하는가라는 측면에서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가족여가는 가족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한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특히 어머니는 가족여가를 또 하나의 일(work)로 경험하기도 하며, 가족여가로 인해 가족간의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는 결과들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긍정적인 가족여가 경험만을 가족여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문제가 있다(Freysinger, 1994; Shaw, 1992).

이것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또 한가지 개념 정의의 어려움은 동기에 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여가는 동기화된 활동으로 정의되지만, 가족여가는 이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즉 때로 가족여가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기초한 의무적인 참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Larson & Gilman, 1997). 예를 들면,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의무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어머니)들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들을 위해 가족여가 경험을 만들기 위해 심각한 작업과 에너지를 투입함으로써 자신을 위한 여가의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다는 연구들도 있다(Shaw, 1997; Thrane, 2000). 그렇다면 의무

적인 상황을 가족여가의 개념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족여가는 모순된 의미와 정서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즉, 가족여가의 본질은 여가와 일, 자발적 동기와 비자발적 동기(의무), 그리고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 모두를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족여가의 모순된 의미와 정서에 근거하여 가족여가를 확대가족이든 핵가족이든 자신이 규정하는 자신의 가족이 모두 함께 하는 여가 활동으로,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나 활동으로 규정하였다.

2. 가족여가 참여 동기

여가 동기는 개인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여가행동에 참여하는가를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여가 참여의 결과 역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여가 동기는 여가 경험에 앞서서 개인이 어떤 여가 활동을 선호하고 선택하여 참여하게 되는 의식적, 무의식적 이유를 의미한다. '왜 여가를 즐기는가' 또는 '여가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가에 대한 동기, 욕구, 이유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 논의되어 왔다.

Ragheb(1980)은 지적, 사회적, 자극 회피, 능력-숙달 요인 등 네 개의 하위 척도로서 전반적 여가 활동에의 참여 이유에 대한 보편적 척도를 구성하였으며, Pierce(1980)는 군집 분석을 통하여 친밀감, 휴식 및 회복, 성취감, 권력, 시간 보내기, 사고 등으로 여가의 목적을 분류하였다. 이렇게 여가의 주요 목적은 개인의 만족과 행복 추구에 기여하는 것이며 여가가 욕구 만족 과정을 돕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여가 동기의 지각은 여러 가지 복합된 자극의 결과로서 참여자가 내부적 동기

(심리적, 지적, 신체적 요인)나 외부적 동기(신분적, 준거집단적 요인)에 의해 활동이 자극되며, 시간적, 경제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여가 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를 말한다(Beard & Ragheb, 1983). 일반적으로 여가 동기는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인 필요에 의해 발생하며 환경적 지지나 제약 요인 또는 사회적 경험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잠재적으로 영향을 준다. 결국 내재적 욕구인 즐거움, 도전, 학습 등의 내적 동기와 여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대가 등의 외적 동기, 그리고 시간, 경제적 여유,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여건 등이 결합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Christopher, Debra, Donald, & Susan, 1995).

도시민의 여가에 대한 의식과 동기를 조사한 김규호(1986)는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가를 창조적인 삶을 위한 것으로, 그리고 자기 개발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하였다. 가족 레크리에이션에 관해 주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외숙(1977)은 여가 활동에 참여하려는 이유로서 상층에 있어서는 '기분전환'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하층'은 '자녀교육'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도시 주부의 여가 활동 동기에는 자기발전적 동기, 휴식적 동기, 사회적 동기, 가족적 동기, 모방적 동기 등의 차원이 있었으며, 이 중 자기발전적 동기가 주부의 여가활동 동기의 전체 변량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었다(이기영·장윤희, 1992).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는 여러 활동에 참여하도록 내적으로 동기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과 재능을 활용하기 위해 도전적인 활동에 참여해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고 자기 표현과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를 가진다. 이러한 여가활동을 통해 개인은 성취감을 이룰 수 있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으며

새로운 경험을 추구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은 여가활동을 통해 자신의 환경과 자신에 대한 학습, 즉 지적인 자극을 추구한다. 즉 인간은 여가를 통해 지적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지, 발전시켜 인간관계로부터의 즐거움을 얻고자 한다. 여가를 통해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신체적으로 건강을 증진, 유지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일과 생활의 긴장으로부터 생기는 스트레스에 대한 휴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가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여가에 참여하는 동기나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여가와는 성격이 다른 가족여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왜 가족여가 시간을 가지는지, 왜 가족여가를 즐기는지, 가족이 여가를 함께 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3. 가족여가 활동의 효과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은 가족 구성원 각각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능력을 개발시키며 자아실현을 도모하는 여가활동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한다. 가족여가는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오는 신체적 피로를 풀어주고,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에서 오는 정신적 피로에 대한 기분전환과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다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가족이 함께 함으로써 혼자서는 맛볼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오락적 기능도 수행한다(김광득, 1990).

가족여가는 위와 같은 여가의 본질적 기능 외에도 가족원들이 여가활동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상호이해와 친밀감을 증진하여 가족결속의 근원이 된다. 또한 가족여가는 가족이 함께 여가를 계획하고 즐기는 가운데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도와주며, 여가에 관한 가족간

의 의사소통은 다른 주제에 관한 의사소통보다 더 개방적이고 덜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의사소통 기술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최길레, 2003; 최길레·강봉화, 2003).

Orthner와 Mancini(1991)는 가족여가생활이 가족의 심리적 만족, 가족의 안정성 및 결속력 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Hill(1988)은 여가활동 참여가 결혼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가족들이 함께 여가에 참여함으로써 가족간의 친밀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양영아(1996)는 가족여가활동의 의의를 가족간의 친밀감, 자녀의 교육, 가족의 즐거움, 가정생활의 활력소, 휴식, 가족의 건강 및 체력 증진, 문화적 경험에 의의를 두었다.

특히, 부모들은 가족여가를 아동 발달 및 학습을 위한 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며(Shaw, 1999),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기 때문에 교육적인 의미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적 효과는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나 다른 가족원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조적인 기능도 수행한다. 이러한 가족여가는 타인에 대한 배려나 책임감의 습득을 갖게 하여 인간관계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루게 하며, 특히 여가의 일탈화 현상에 대한 좋은 방지책이 될 수 있다(Kelly, 1983).

이와 같이 가족여가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 사회에서 가족이 특히 중요한 여가집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여가활동이 가족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은 본래의 기능 외에 가족의 이해와 신뢰감의 배경이 되며,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여가활동에 비해 더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가족은 여가집단으로써 가족원에게 근본적인 자원이 된다. 또한 가족 단위의 여가는 가족이 함께 여가를 계획하고 즐기는 가운데 상호

작용과 의사소통을 도와주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기 때문에 가정교육을 위한 장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가족여가는 가족의 이해와 행복을 가족 공동의 것으로 만들며, 가족에게 혼자서는 맛볼 수 없는 기쁨을 주게 된다(윤소영·윤지영, 2003).

결국 가족여가는 자기개발과 자기실현을 위한 능력개발 및 가족원을 위한 교육적 기능,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풀어주고 즐거움을 제공하는 기능, 사회적 통합 및 여가의 일탈화 방지 기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족원의 유대감을 발달시키는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여가 또한 여가의 부정적 기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예를 들면, 가부장적 사회질서가 견고한 우리나라에서 가족내에서도 젠더와 세대에 따라 가족여가가 불평등하게 표출될 수 있으며, 여가의 불평등화 현상이나 향락화를 조장함으로써 가족간 상대적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고, 가족 구성원 개인의 사생활이 방해받을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김정하, 1995). 본 연구에서는 가족여가 참여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여가의 긍정적 효과 혹은 기능과 부정적 효과 혹은 기능을 측정함으로써 가족여가 활동으로 인한 긍정적 경험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불만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상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족여가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여가 활동으로 규정하였으며, 가족 구성원 각각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 및 가족여가 활동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가족여가 참여 동기와 가족여가 활동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성별과 세대에 따라 가족여가 참여동기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2) 성별과 세대에 따라 가족여가 참여효과 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3) 가족여가 참여동기와 가족여가 활동 효과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2003년 3월에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족 중 청소년 자녀가 있는 130가족의 부모와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을 표집하기 위하여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3군데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각 학생을 통해 해당 부모들의 질문지를 부탁하고 회수하였다. 배부된 질문지 중 회수되지 않았거나, 부, 모, 자 중 한 사람이라도 불성실한 기재를 한 30가족의 질문지를 제외하고 100가족(아버지 100, 어머니 100, 자녀 100), 총 300부가 최종적으로 연구의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40대가 80%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약 80%의 부부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다. 가족의 소득 수준은 참가 가족의 55% 이상이 200만원 이상의 월소득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대졸 이상이 가장 많았고(74.5%), 어머니는 고졸이 가장 많았다(54.9%). 청소년 자녀의 경우는 중학생이 68%, 고등학생이 32%를 차지하였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70%를 차지하였다.

3. 조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문항은 가족여가 실태에 대한 특화된 연구가 부족한 상태라 상당 부분 새롭게 구성하였다. 우선 가족의 여가활동 참여 동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Beard와 Ragheb(1983)이 개발하고 원형중(1998)이 변한 개인 여가 동기 척도(Leisure Motivation Scale)와 가족여가와 관련된 선행 연구(고갑준, 1998; 김성희·이철원, 2003; 원형중, 1998; 장윤희, 1991)들을 기초하여 가족여가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추출하고 수정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가족여가 참여동기를 지적(교육적) 동기, 유대적 동기, 휴식적 동기, 그리고 의무적 동기로 구분하고, 각 동기를 측정하는 문항을 각각 3개씩 구성하여 총 12문항의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각 문항의 예로는 “나는 가족원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 가족여가에 참여한다”, “나는 가족과 함께 대화시간을 가지기 위해 가족여가에 참여한다”, “나는 매일의 의무로부터 해방감을 느끼기 위해 가족여가에 참여한다”, “나는 가족원으로서의 의무감 때문에 가족여가에 참여한다” 등이다. 본 검사에 이 검사지를 사용하기 전에 예비 검사(pre-test)를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본 검사지의 신뢰도는 지적 동기가 Cronbach's α 계수가 .62, 유대 동기가 .87, 휴식 동기가 .64, 의무 동기가 .65로 나타났다. 타당도 검사에서는 가족학 및 여가학 전공자 각 1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가족여가 활동의 효과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효과들에 대해 항목을 작성하고, 가족중심의 여가시간이나 활동이 자신의 가족에게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의 정도를 묻는 12문항을 작성한 후, 예비 검사(pre-test)를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본 검사지

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80으로 나타났다. 타당도 검사에서는 가족학 및 여가학 전공자 각 1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가족여가 활동 참여 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가족 중심의 여가에 왜 참여하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가족여가 활동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가족 단위의 여가시간이나 활동이 가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가족여가 참여동기

우리나라 가족의 여가 참여 동기를 살펴보기 위해 지적 동기, 유대적 동기, 휴식적 동기, 의무적 동기 각각 3문항으로 구성된 12문항의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우선, 가족 전체의 동기를 살펴본 결과, <표 1>에서 가족 전체의 평균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가족은 가족의 유대를 위해 가족여가에 참

여하는 경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식적 동기, 지적 동기, 그리고 의무적 동기의 순으로 가족여가에 참가하는 이유를 보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사이, 그리고 남편과 아내사이에 가족여가 참여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유대적 동기에서 성별에 따른 청소년 자녀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족간의 유대와 화목을 위해서 가족여가에 참여한다는 응답율이 여자 청소년에게 높게 나타난다. 즉, 가족과 함께 어울리는 것에 대해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들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간의 유대를 위해 가족여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남자 청소년 자녀들에게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이 보다 적극적인 가족여가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2. 가족여가 참여효과

가족여가 활동으로 인한 긍정적, 부정적 효과의 각각의 항목에 대해 가족 구성원의 개인별 응답을 비교한 결과 <표 2>, 아버지, 어머

<표 1> 성별과 세대에 따른 가족여가 참여동기

배경변인별		지적 동기		유대적 동기		휴식적 동기		의무적 동기	
		M, SD	F(t) value	M, SD	F(t) value	M, SD	F(t) value	M, SD	F(t) value
가족 구성원 (N)	아버지(100)	3.54 (.94)		4.20(.85)		3.65(.94)		2.50 (.95)	
	어머니(100)	3.55 (.72)	1.115	4.23(.76)	.296	3.64(.84)	1.181	2.41 (.95)	1.350
	자녀(100)	3.38(1.06)		4.14(.86)		3.48(.88)		2.28(1.00)	
자녀 성별 (N)	남자청소년(30)	3.19(1.03)		3.76(.62)		3.32(.65)		2.26 (.68)	
	여자청소년(70)	3.44(1.07)	-1.046	4.28(.89)	-2.728**	3.53(.96)	-1.088	2.28(1.10)	-.069
가족 전체		3.49(.92)		4.19(.82)		3.59(.89)		2.39(.97)	

*p<.05 **p<.01 ***p<.001

<표 2> 가족 구성원별 가족여가 활동으로 인한 효과

항 목	가족전체 M, SD	아버지 M, SD	어머니 M, SD	자녀 M, SD	F-value
1. 가사노동 시간이 증가한다.	2.74(1.27)	2.46(.95)a1)	2.92(1.18)b	2.83(1.57)ab	3.722*
2.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곤하다.	2.83(1.25)	2.63(.99)	2.89(1.33)	2.96(1.38)	1.940
3. 배우자간 갈등이나 의견불일치가 심해진다.	2.52(1.83)	2.21(1.08)a	2.32(1.20)a	3.04(2.67)b	6.335**
4. 부모자녀간의 갈등이나 의견불일치가 심해진다.	2.26(1.26)	2.23(.85)	2.26(1.12)	2.30(1.69)	.076
5. 배우자 사이가 평등해진다.	3.71(1.48)	3.52(.70)a	3.39(1.01)a	4.22(2.18)b	9.518***
6. 부모자녀사이가 평등해진다.	3.52(1.10)	3.48(.77)	3.54(1.09)	3.55(1.37)	.117
7. 배우자간 친밀감이나 애정이 증가한다.	4.21(1.46)	3.88(.67)a	4.04(1.08)a	4.70(2.11)b	9.300***
8. 부모자녀간 친밀감이나 애정이 증가한다.	4.02 (.98)	3.94(.64)	4.03(.87)	4.09(1.31)	.590
9. 재정적인 부담이 증가한다.	3.49(1.39)	3.36(.89)	3.63(1.20)	3.47(1.88)	.952
10. 상대적 위화감이 증가한다.	2.56(1.42)	2.43(1.15)	2.64(1.45)	2.60(1.63)	.608
11. 가사, 학업, 또는 노동의 능률이 오른다.	3.58(1.13)	3.67(.94)	3.71(1.24)	3.37(1.16)	2.728
12. 사생활이 방해를 받는다.	2.12(1.07)	2.03(.75)	2.17(1.07)	2.17(1.31)	.569

*p<.05 **p<.01 ***p<.001

1) 각 열의 서로 다른 문자는 Scheffe 검증 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임

니, 자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가사노동 시간이 증가함' '배우자간의 갈등 및 의견불일치가 심해짐' '배우자 사이가 평등해짐' '배우자간 친밀감 및 애정이 증가함' 이다. 이 중 아버지와 어머니, 즉 부부간 혹은 남편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 항목은 가사노동 시간의 증가이며,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가족여가 활동으로 인해 가사노동 시간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맞벌이 부부라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주요한 생계 부양자로 인식됨으로써 아버지는 일상적인 가사 활동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되고 어머니에게 여가라는 것은 또 하나의 '일'로 경험되고 있다는 선행연구와 맞벌이 부부의 여가 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남편은 수입노동시간, 부인은 가사노동시간이라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이승

미, 1996; Shaw, 1992).

이 외 나머지 항목은 부부관계와 관련된 영역인데, 배우자간의 갈등이나 의견불일치가 심해진다거나 배우자 사이가 평등해진다거나 배우자 사이의 친밀감 및 애정이 증가한다는 항목에서 부모와 자녀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갈등이나 의견불일치가 심해지는 측면이나 평등해지고 친밀해지는 측면이나 모두 자녀들이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즉, 자녀의 관점에서 볼 때 가족 단위의 여가 시간이나 여가활동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가족 단위의 여가시간이나 활동이 가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결과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즉, 문항 1, 2, 3, 4, 9, 10, 12

는 부정적 영향으로, 문항 5, 6, 7, 8, 11은 긍정적 영향으로 묶어서 분석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우선, 우리나라 가족은 가족여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부정적인 효과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 구성원별로 가족여가 활동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긍정적인 효과에서는 부모보다 자녀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

으며, 부정적인 효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3. 가족여가 참여동기와 가족여가 참여효과와의 관계

가족여가의 참여동기와 가족여가의 참여효과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별

<표 3> 성별과 세대에 따른 가족여가 참여효과

배경변인별		가족여가 활동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 (M, SD)	가족여가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 (M, SD)
가족 구성원 (N)	아버지(100)	3.69(.62)a	2.47(.57)
	어머니(100)	3.74(.81)a	2.69(.86)
	자녀(100)	3.98(1.12)b	2.76(1.18)
F-value		3.280*	2.734
자녀성별 (N)	남자청소년(30)	4.07(1.47)	2.96(1.48)
	여자청소년(70)	3.95(.97)	2.59(1.05)
t-value		.476	1.037

*p<.05 **p<.01 ***p<.001

1) 각 열의 서로 다른 문자는 Scheffe 검증 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임

<표 4> 아버지의 가족여가 참여동기와 가족여가 참여효과와의 관계

	지적동기			유대동기			휴식동기			의무동기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부	모	자	부	모	자	부	모	자	부	모	자	부	모	자	부	모
지적 동기	1.00																
유대 동기	.691**	.624**	.515**	1.00													
휴식 동기	.700**	.621**	.475**	.728**	.751**	.587**	1.00										
의무 동기	.611**	.325**	.367*	.466**	.358**	.222*	.531**	.475**	.460**	1.00							
긍정적 효과	.137	.181	.207*	.236*	.188	.146	.220*	.254*	.099	.169	-.132	.083					
부정적 효과	-.040	-.079	.105	-.040	-.166	-.168	.019	-.061	-.168	.285**	.085	.218*	-.469**	.258**	.539**	1.00	

*p<.05 **p<.01 ***p<.001

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우선 아버지의 결과를 보면, 아버지는 가족여가의 참여동기 중 유대동기와 휴식동기가 가족여가의 긍정적 효과와 정적으로 관계가 있으며, 의무동기는 가족여가의 부정적 효과와 정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는 가족과의 유대를 위해 그리고 휴식을 위해 가족여가에 참여할수록 가족여가의 긍정적 효과를 경험하며, 가족여가에 의무적으로 참여할수록 가족여가의 부정적 효과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는 가족여가의 참여동기 중 휴식동기가, 자녀는 지적 동기가 가족여가의 긍정적 효과와 정적으로 관계가 있었다. 반면, 자녀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의무동기가 가족여가의 부정적 효과와 정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에게는 이러한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유대동기가 가족여가의 긍정적 효과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가족여가를 자녀와의 애착이나 친밀한 관계 등 개인적 보상의 기회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하며 (Freysinger, 1994; Repetti, 1989), 어머니는 어차피 남편이나 자녀들의 여가욕구를 우선순위에 두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Shaw, 1999) 의무적인 동기가 가족여가의 부정적인 효과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진다.

V. 논의 및 결론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각 가족구성원들의 가족여가 참여동기와 효과를 살펴보고, 가족여가 참여동기에 따른 가족여가의 효과를 파악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가족이 가족여가에 참여하는 동기를 살펴본 결과, 현재 우리나라 가족

은 가족의 유대를 위하여 가족여가에 참여하고 있는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유대적 동기는 가족구성원(아버지, 어머니, 자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자녀의 경우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유대적 동기에 의해 가족여가에 참여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은 주목할만하다. 가족 구성원별로 유대적 동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여자 청소년들이 유대적 동기에 의해 가족여가에 참여하는 경향이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 가족의 건강과 피로회복을 위한 휴식적 동기, 그리고 자녀의 교육이나 가족원의 재능과 솜씨를 발휘하기 위한 지적 동기로 인한 가족여가 참여가 그 다음 순위로 발견되었다. 여가 제약이나 여가 시간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을 보면 주부들이 여가 제약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거나(김성희, 강유원, 2000), 휴일의 여가시간에서 부부간에 94분이나 남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이승미, 1996) 있다. 국외의 연구에서도 남편(아버지)들은 과중한 사회적 노동으로부터의 휴식이라는 여가의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여가시간을 개인의 휴식이나 자기개발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Larson & Gilman, 1997), 부인(어머니)들은 가정이나 가족을 여가의 맥락으로 인지하지 않는다는 연구(Shaw, 1999)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모두 휴식이나 의무가 아닌 가족의 유대를 위해 가족여가에 참여한다는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가족여가문화가 매우 희망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본 연구의 참가자의 80%가 40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과거 세대보다는 가족의 유대와 화목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가족은 가족여가 활동에 참

여함으로써 부정적인 효과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아버지, 어머니, 자녀 모두 각각 가족여가 활동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세대별로 아버지, 어머니, 자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세대별 차이에서 부모 세대보다 자녀세대가 가족여가 활동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금까지 청소년 자녀는 가족여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모순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긍정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세부 문항별로 개인별 응답을 비교한 결과로 일부 해석이 가능한데, 자녀는 가족여가활동으로 인해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가 평등해지고 친밀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결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셋째, 가족여가의 참여동기 중 지적 동기, 유대 동기, 휴식 동기는 가족여가의 긍정적인 효과와 정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들이 지적, 유대, 휴식의 동기에 의해 가족여가에 참여할수록 가족여가의 긍정적인 효과는 높아진다는 것이다. 반면, 가족여가의 부정적인 효과는 유대동기와는 부적으로, 의무동기와는 정적으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가족여가에 의무적으로 참여할수록 가족여가의 부정적인 효과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여가의 활성화 및 바람직한 가족여가 문화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여가 활동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과의 유대를 위해 가족여가에 참여하는 것은 현재 가족들이 가족여가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일 뿐 아니라 가족여가의 긍정적인 효과와 관련이 높다.

따라서 가족여가를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상대적으로 가족여가에 소극적인 남자 청소년들이 가족여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현재 주 5일 근무제가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앞으로 전면적 실시를 앞두고 주 5일 학습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가족여가에 대한 욕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청소년 자녀와 무엇을 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와 계획은 부재한 상태이다. 셋째, 가족여가 활동으로 인해 가사노동만 증가시킨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여성들에게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조차 남편들의 가사노동 참여가 매우 저조한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여가의 내용이 단순히 함께 있거나 쉬는 것만으로 그칠 경우 여성들의 가사노동의 물리적 시간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휴식을 위한 가족여가활동이라도 온 가족이 함께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가족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여가는 공동의 체험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간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율적인 여가활동의 경험과 과정 속에서 진정한 여가의 의미를 깨닫고 가족의 결속을 강화하는 일이다. 이제 우리 사회도 가족 중심의 여가 콘텐츠에 대한 개발과 보급이 절실하며 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을 통해 가족 중심의 자율적 여가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고갑준(1998). 가족 여가 활용을 통한 가족 복지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 석사 학위 논문.
- 2) 김광득(1990). 현대여가론. 서울: 백산 출판사.
 - 3) 김규호(1998). 도시민의 여가의식 및 행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4) 김외숙(1977). 가족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5) 김성희, 이철원(2003). 도시 근로자의 여가 동기에 따른 여가계약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2(3), 391-400.
 - 6) 김정하(1995). 현대산업사회에서 여가의 부정적 기능분석. 관광연구논집 7, 91-111.
 - 7) 김현주, 이창현, 박소라(2002).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직장인들의 주말 여가 문화 이용 행태 변화: 설문조사를 통한 실시집단과 비실시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생활문화의 변화(pp.24-37). 제 1회 여가문화학회 포럼 자료집
 - 8) 양영아(1996). 중산층의 가족여가활동 실태와 요구 조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9) 원형중(1998). 성인근로자의 여가활동 참여 동기와 제약요인에 관한 기본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7(2), 369-386.
 - 10) 이기영 장윤희(1992). 도시주부의 여가활동 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45-161.
 - 11) 이승미(1996). 맞벌이 부부의 여가시간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63-75.
 - 12) 이호경(1994). 가족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서울 YMCA 성인 회원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3) 최길례(2003). 가족의 여가활동이 정서적 역동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2(3), 175-184.
 - 14) 최길례 강봉화(2003). 가족의 여가활동이 가족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9, 1023-1034.
 - 15) 홍성희(1996). 주부의 가족여가 활동 참여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 71-84.
 - 16) Beard, J., & Ragheb, M. (1983). Measuring leisure motiv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5(3), 219-228.
 - 17) Carnegie Corporation(1992). *A matter of time: Risk and opportunity in the nonschool hours*. New York: Author.
 - 18) Christopher, R. E., Debra, J. J., Donald, G. D., & Susan, R. E. (1995). *Leisure and life satisfaction: Foundational perspectives*. Madison, WI: Brown & Benchmark.
 - 19) Freysinger, V. J. (1994). Leisure with children and parental satisfaction: Further evidence of a sex difference in the experience of adult roles and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3), 212-226.
 - 20) Hill, M. S. (1988). Marital stability and spouses shared time. *Journal of Family Issues* 9, 427-451.
 - 21) Horna, J. L. A. (1989). The leisure component of the parental rol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1, 228-241.
 - 22) Kelly, J. R. (1983). *Leisure identities and interactions*. London: George Allen & Unwin.
 - 23) Larson, R. W., & Gillman, S. A. (1997). Divergent experiences of family leisure: Fathers, mothers,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1), 78-97.
 - 24) Orthner, D. K., Barnett-Morris, L., & Mancini, J. A. (1993). Leisure and family over the life cycle. In L. L. L'Abate(Ed.), *Handbook of developmental family psychology and psychopathology*(pp. 176-201). New York:

- W. Thomas.
- 25) Orthner, D. K., & Mancini, J. A. (1991). Benefits of leisure for family bonding. In B. L. Driver, P. J. Brown, & G. L. Peterson(Eds.), *Benefits of leisure*(pp. 215-301). State College, PA: Venture.
- 26) Pierce, R. C. (1980). Dimensions of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1), 5-19.
- 27) Ragheb, M. (1980). Interrelationships among leisure participation, leisure satisfaction, and leisure attitud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 138-149.
- 28) Repetti, R. L. (1989). Effects of daily workload on subsequent behavior during marital interaction: The roles of social withdrawal and spouse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651-659.
- 29) Rosenblatt, P. C., Titus, S. L., Nevaldine, A., & Cunningham, M. R. (1979). Marital system differences and summer-long vacation.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7, 227-249.
- 30) Shaw, S. M. (1992). Dereifying family leisure: An examination of women's and men's everyday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family time. *Leisure Sciences* 14(3), 271-286.
- 31) Shaw, S. M. (1997). Controversies and contradictions in family leisure: An analysis of conflicting paradigm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1), 98-112.
- 32) Shaw, S. M. (1999). Purposive leisure: Examining parental discourse on family activities. In W. Stewart & D. Sandahi(Eds.), *Abstracts from the 1999 Symposium on Leisure Research*(pp. 7). Ashburn, VA: National Park and Recreation Association.
- 33) Thrane, C. (2000). Men, women, and leisure time: Scandinavian evidence of gender inequality. *Leisure Sciences* 2, 109-122.